

* 축산뉴스 (돼지) *

↓ 농협, 돼지고기 브랜드 11개 집중 육성

농협중앙회가 현재 63개에 달하는 지역 양돈조합 브랜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우선 '농협 공동 브랜드사업'을 통해 이중 농협 1개(목우촌), 양돈조합 5개, 지역축협 5개 등 총 11개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공동 브랜드 가치 'NH 포크'를 신설할 예정. 이와 함께 나머지 브랜드들은 각 브랜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입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농협은 국내 양돈 공급물량의 40% 이상을 점유, 돼지고기 유통시장을 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농협은 농협 돈육 사업 관리위원회, 양돈사업단(부), 생산(브랜드)주체, 판매사업단 등의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돼지 구입에서 사양-도축-가공-판매 등의 전 과정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 조합은 '판매전문조직'과 협약을 체결해 계열생산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농협은 소비자 중심의 품질제고를 위해 '농협 돈육 품질관리위원회'를 운영, 돈육 생산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생적인 도축 및 가공시설을 확보, 품질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협은 공동 브랜드 판매 가능 일원화를 위해 판매사업단을 설치, 판매 전담 조직을 육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아그로스퍼 돈육 잔류물질 존재하지 않아

최근 일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발견,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자 글로벌 농축산기업 아그로스퍼가 직접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그로스퍼 CEO 호세구즈만은 최근 아그로스퍼 한국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품질요구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모든 돈육은 GAP·GMP, HACCP, ISO 등 세계품질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어떠한 잔류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원료의 수입 날짜, 출하 날짜, 물량 등을 컴퓨터로 철저히 관리하는 사료 관리, 외부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육시설, 위생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도축장 등을 100% 수직계열화하는 세계적인 돈육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아그로스퍼는 다이옥신 검출에 따른 검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를 정상 통과했다.

↓ 22일부터 2개월간 돈육선물 실전투자 개최

(사)한국선물협회는 삼성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선물, NH투자선물과 공동으로 9월22일~11월21일 2개월 동안 '돈육선물 실전투자대회'를 연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투자자 및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에는 1인 1계좌만 참여 가능하고 돈육선물 최근 월물이 거래종목이다. 대회 기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1위 입상자에게는 상금 2천만원을, 2위에게는 1천만원을 준다. 또 매주 돈육대표가격 증가 맞히기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무제한 경품도 나눠준다. 참가신청은 11월 7일까지 가능하며 대회 홈페이지(invest.kofa.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양돈계열화사업 규모 '대상팜스코' 1위

양돈계열화업체 중 생산두수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대상팜스코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국류유통수출입협회가 발간한 '식육면담(2008) 양돈계열화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총 21개로 나타났다. 총 생산두수 규모는 246만3천603두, 계열농가수로는 848개에 달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이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대상팜스코로 총 203농가 44만두, 2위는 도드람양돈으로 166농가 35만7천579두, 3위는 농협목우촌으로 68농가 28만6천190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138만480두(552농가)로 전국 계열화 생산규모의 56%를 차지해 계열화업체들이 밀집한 최대 생산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